

## 조선시대 정원문화에 나타나는 전환기적 양상

### A Study on the Transitional Aspects of Garden Culture in Joseon Dynasty

최종희\*, 김동현\*\*

배재대학교 원예조경학부\*,  
배재대학교 대학원\*\*

Choi jong-hee\*, Kim dong-hyun\*\*

Division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Pai Ch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Pai Chai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정원 관련 문헌의 분석을 통해 정원문화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결과 산수에 의탁하는 귀거래의 화구는 한양으로의 문물 집중현상으로 도시 속의 전원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정원문화로써 이전시기 완물상지로 여겨지던 화목이나 화훼에 대한 애호와 석가산의 조성이나 산수화를 통한 고동서화의 취미로써 산수에호사상과 함께 자신이 선호하는 요소를 가까이 두고 즐기곤 했던 와유문화의 완성기로 대별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정원문화가 자연관의 변화나 기존의 문화가 완성되는 형태로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 서론

조선 전기에 걸쳐 나타나는 선조들의 정원은 유교문화를 정신적 근간으로 수려한 자연 속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면서 시와 문학을 논하는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정원은 사회적 변화를 거치면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정원문화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선 후기의 정원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서 나타나는 정원문화의 전환기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자연관과 정원문화양유 행태를 살펴보았다. 시대적으로는 전반적인 문화가 성숙기를 이루는 18세기를 전·후로 조선의 시기를 분류하고, 조영자 개인의 이상향을 정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로 정원문화를 한정하였다. 정원의 조성은 조영자의 취향에 따라 공간의 특성이 좌우되므로 자연관은 정원조성에 있어 주요 모티브가 되는 요소이다. 또한 정원문화는 자연관이 내재된 정원에서의 생활로써 당시 일반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정원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자연관과 정원문화의 측면에서 정원문화의 특징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은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1], 추가적으로 조선시대 문집을 번역한 서적을 참고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자연관의 변화

조선 전기 정원 관련 기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중국 진(晉)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歸去來)’를 표방한 문화적 현상으로써 은일(隱逸)·은거(隱居)의 자연관을 들 수 있다. 욕심 없이 고요한 상태로 무위자연을 노래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고, 시정의 세속보다 산림·전원·강호의 자연을 노래하는 것을 낙으로 여겼다[2]. 이러한 양상은 별서라는 정원문화에 투영되어 조선시대 사회와 당쟁의 심화로 세상의 이목을 피해 번거로운 없이 지내려는 피세의 보금자리로써 저택에서 인접한 경승지나 전원에 은둔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조성한 제2의 주택을 형성하고자 하였다[3].

한편 조선 후기에는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세속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양으로의 문물 집중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4], 한양에 살면서 처사로서의 본색, 문화의 안목 등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을 통해 당시의 조선 후기 관료세계로부터 가까이 있으며, 한양에서의 문화혜택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면서, 도시 속에 정원 즉, 성시산림(城市山林)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화세족은 조선 후기 권력층으로써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성 일대의 경승지를 취득하고, 자신의 이상향을 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성에서 나타나는 정원은 기존 지방의 별서와는 달리 주거를 겸비한 별장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으며, 한양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

원에서 전원의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시은(市隱)의 삶을 추구하였다.

## 2. 정원문화의 변화

조선시대 정원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목에 대한 애호를 들 수 있다. 화목은 정원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양화소록(養花小錄)』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서에서 정원식물의 특성이나 식재기법을 기술한 바 있으며, 화목에 상징성을 부여하거나, 녹음이나 단풍 등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비문화로 대표되는 조선시대에 있어 정치나 교화, 경서 등을 제외한 다른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완물상지(玩物喪志)라 하여 이를 경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채지홍의 시문에서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일 뿐 감히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니다. 요컨대 완물상지의 경계를 가슴속에 새겨 꽃에 젖어드는 우려를 없앨 것이다[5].'라고 밝히고 있어 화회에 대한 관심과 완물상지에 대한 당시 사회의 관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경화세족 사이에서 화목에 대한 관심이나 원에 취미는 단순한 애호의 차원을 넘어 벽(癖)의 단계로 나타났으며, 주자학에서의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이론은 화회에 대한 관심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서울을 중심으로 문인들의 조화 취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외에 특징적인 정원문화로써 '와유(臥遊)'의 문화를 들 수 있는데, 와유는 누워서 유람한다는 사전적 의미로서 명승이나 고적 등을 그린 그림을 통해 집에서 산수의 아취를 느끼고자 하는 정원문화에 해당한다. 이는 조선 초기에서부터 꾸준히 애호되던 현상으로 강희맹의 『사숙재집(私淑齋集)』에는 그림을 통해 산림(山林)과 강해(江海)의 풍취를 차지할 수 있다 하였으며, 그보다 더욱 깊은 풍취를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석가산을 지목하였다. 이와 같은 와유문화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완성기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기존의 석가산 조성, 산수화의 감상이 고동서화(古董書畫)의 수집으로 확장되었다. 유언호의 『동원아집기(東園雅集記)』에 의하면 유명한 서화, 악기, 옛 술잔 등을 수집하면서 이를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칭하고 지인들과 이를 폄평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전 시기 와유의 문화가 산수를 가까이 두고자 하는 애호의 형태였다면 후기에는 산수를 포함하여 자신이 선호하던 요소를 정원 내에 끌어들여 즐기고자 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IV. 결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정원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원 문화에 나타나는 전환기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거래의 표상으로써 산수에 의탁하여 은일·은

거하고자 하는 조선 전기의 자연관은 조선시대 별서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시정의 세속보다는 산림이나 강호에 의탁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해왔으나, 조선 후기 한양으로의 문물 집중 현상은 도시 속의 전원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권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영자가 희구하는 이상향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둘째, 정원문화의 사례로는 화목·화회에 대한 애호와 와유문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조선 전기 화회에 대한 애호는 당시의 문헌에서 다수 등장하고 있으나 완물상지로 여겨지던 정원문화는 후기에 이르러 벽의 단계로까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그림이나 석가산의 조성을 통해 산수의 풍취를 자신의 정원 내에서 감상하는 와유문화는 조선시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원문화였으나, 후기에 들어 고동서화의 취미로 확장되는 일종의 완성기에 이르게 되면서 이전시기 산수애호사상과 더불어 자신이 선호하던 요소들을 정원 내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 후기의 정원문화가 자연관의 변화나 기존의 문화가 완성되는 형태로 이전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한국고전종합DB
- [2] 허균,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다른세상, 서울, 2002
- [3] (사)한국전통조경학회,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서울, 2009.
- [4] 박석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창작과 비평사, 파주, 2009
- [5] 안대회, 조선의 프로페셔널, 휴머니스트, 서울, 2007